

政治, 새모습으로 부활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로 가는 길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새 정권은 출발부터 정치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설렘과 감동을 주게끔 정치가 앞장서서 흥을 돋우지 못할 뿐 아니라 누구도 앞장서서 새 시대를 노래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새 시대를 열겠다는데도 어딘가 움츠러드는 것 같은 분위기다.

살기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정치를 멀리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 알아 버린 때문이다.

기대가 유난히 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박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던 이들에게서 환호와 박수보다는 더 큰 실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대선 때 야당과 함께 내뱉던 정치개혁이라는 공약은 그 자체가 허황된 것이었지만 그나마 실행해 나갈지도 의심스럽다.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는 데 힘이 부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취임 초에 있을 법한 이른바 밀월시기는 놓쳐버렸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정외 처리에서 정치권과 마찰을 빚는다면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 닥칠 위험이 크다.

사태가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정치가 깔끔하게 국면을 바꾸는 요술같은 재주를 보여야 하는데 그런 정치꾼도 눈에 띄지 않는다.

과연 새 대통령은 그런 대화, 협상의 정치에 몸을 던질 수 있을까. 정치를 되도록 멀리 하려는 박 대통령이 그런 흠땀물에 몸을 던지려고 할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정치개혁을 말할 때가 아니라 역동성 있게 정치를 부활시켜야 할 때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참된 정치의 힘, 정치의 맛을 보였으면 좋겠다. 정치의 르네상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소통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따져보면 작년 대선 때 나온 정치개혁이란 공약은 진부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의 정치가 헛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책상물림식 아마추어 서생론(書生論)이었다. 정치인이 누리는 특권을 좀 내려놓고 비용을 얼마 줄이고 의원수를 몇 줄이는 것으로 정치가 개혁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시도 쉬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가능한 모든 것을 창조하는 예술이라거나 중국의 고대 정치를 빗대서 풀었다 댕겼다(一張一弛)하는 게 바른 정치의 길이라고 깨우치는 등 정치가 나아갈 길을 훈수하는 말은 해야 할 수 없이 많

다. 정치는 백성을 섬겨야 한다거나 정(正)이라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는 미국의 독설가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나랏일을 운영한다"고 내뱉듯이 한 말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묵은 때를 벗고 새 각오로 출범하는 지금은 정가는 물론 관가나 거리에도 새 정치의 바람과 설렘이 넘쳐야 옳다.

특별기고



조용중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전 연합통신 사장

질서와 준법이라는 암묵의 자물쇠가 모든 이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고 있다. 약속과 원칙은 틀에 갇힌 완성품이다. 그것을 지키자면 크고 작은 저마다의 새로운 꿈을 키울 수가 없고 따라서 발랄한 정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앞장서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면 어떤가. 서로가 옳거나 그르거나 트집을 잡고 헐뜯고 다투다가도 협상을 벌이고 악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새롭고 더 큰 가치와 목표를 함께 하는 경주같은 것이 정치의 세계일 것이다. 강(江)도 없는데다 다리를 놓겠다는 것이 허풍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필요하면 공약해야 하는 게 정치다. 아무리 비웃더라도 공약한 당사자는 다리 공사 예산을 듬뿍 확보하는 것으로 제 힘을 자랑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 게 정치의 한 단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통합과 소통은 귀중한 한표를 던진 주인공들과의 소통이 먼저라야 하지만 동시에 반대표를 던진 이들도 너그럽게 보듬고 감싸서 감동시키는 여유를 보이는 정치의 묘수를 써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재빨리 민심의 높이와 넓이에 제 몸을 던질 줄 아는 정치만이 가지는 괴력이다.

단순화하면 정치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할 때와 민심의 향배에 따라 헌신짝처럼 약속을 버릴 때를 구별하는 동물적인 감각을 함께 갖춰야 한다.

약속이나 법과 질서라는 테두리는 정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법의 궁극(窮極)에는 항상 정치가 있다는 것은 평범하지만 변치 않는 진리이다.

법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은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법과 질서, 원칙에 얽매이는 나머지 새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구나 스스로 새 변화를 창조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혐오하고 배척해야 할 정체(停滯)이고 퇴보가 아닐 수 없다. 끊임없이 새 것을 창조하고 새 것에 도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꿈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개혁이다.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나온 두 종류의 장기전망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불거진 북핵 문제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 안팎의 정세를 함께 꿰뚫어 보는 고도의 통찰력과 정치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야말로 정치가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면서 동시에 모두를 창피하게 만드는 부패를 뿌리 뽑아서 나라의 품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 창조의 힘은 오직 정치의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K]

말 장난에 그칠 '개혁' 이제 그만 대화·협상으로 꿈-활력 살릴 때

그런 바람,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터지는 것이 정치가 갖는 활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원칙과 약속,

눈치만 보는 요령꾼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좀 시끄럽고 떠들썩해서 먼지가 쌓이

'휴전 60주, 북 핵실험과 남북관계' 대토론회

3월 2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대한언론인회는 6·25 한국전쟁 63주년, 휴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올해 '휴전 60주년,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의 심각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해 봄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정확히 인식,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 및 한미연합사 해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이해시키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에게는 이 기사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토론회 하루 전 문자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대한언론인회
-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대주제 : '휴전 60주년, 북한핵실험과 남북관계전망'
- ...주제발표자 : 이상우 박사
(국제정치학·신아시아연구소소장·전 한림대 총장)
- ...지정토론자 : 안인해(고려대 교수·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방형남(동아일보 논설위원·동아일보부설 21세기평화연구소 소장)
도준호(대한언론인회 이사·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정일화(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사 회 : 문명호(본회 주필·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성장-복지 선순환 이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가는 길

대한민국 역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대로 접어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난제와 역경을 안고 출범했다. 세계적 경제난에 따른 국내경제의 저성장기조, 온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안보문제를 비롯, 양극화에 따른 사회 갈등, 저출산과 인구노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근로자, 사교육 만연과 파행적 공교육, 극심한 부동산 침체, 정부와 가계의 누적 부채, 크고 작은 각종 사회적 불법 행위, 근절되지 않는 부정 부패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만년을 무릅쓰고 공약대로 희망의 행복시대를 열어 줄 것을 국민은 크게 기대하고 있다.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서도 국민의 최대 관심은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의 성공적 실현 여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100% 무료진료,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같은 내용이다. 기존의 각종 복지 항목 이외에 이들 ‘박근혜 표’ 복지공약에만 임기 5년간 1백3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돈이다. 이 돈을 어떻게 차질없이 마련할 것이며 과연 이들 4대 복지에 1백35조원 정도만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당초 제시된 재원확보 방안은 증세 없이 재정과 조세개혁 만으로 연간 27조원 씩 5년간 1백3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산절감과 세출구조 조정 71조원, 복지행정 개혁 10조6000억원 등 세출을 줄여 60% 정도를 확보하고 세제 개편 48조원, 기타 재정수입 확대 5조원 등 세입증가로 나머지 40%를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낭비예산을 줄이고 세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은 ‘똥구름 잡기’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다. 그래서 복지재정을 늘리려면 세율 인상 및 세금감면 축소, 과세대상 확대, 탈세방지 등을 통한 세수증대, 세출예산 조정, 타 예산 전용 등의 방법이 있지만 세율인상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재원규모도 1백35조원으로는 어렵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日本사례 타산지석으로

새로운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무리없이 복지공약을 실행에 옮길 수만 있다면 여기서 더 바랄 나위가 없다. 특히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민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평가받아 마땅한 자세라 할만하다. 그러나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거나 당초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문제다. 만에 하나 무리를 해서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복지구현의 문제와 건전재정 건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복지프로그램은 한번 시행하면 폐기하거나 축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년전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상무
·세종대 석좌교수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는 작년 9월 올해 예산안을 짤 때 경제성장률을 4%로 잡고 거기에 맞춰 세금이 216조 4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2조 원가량 줄어든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에 휩싸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 측은 원래 공약을 국민이 잘못 이해했던 결과라고 변명했지만, 공약을 애매하게 만들어 국민에게 ‘장밋빛 희망’을 심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에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는 애초부터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 질문에 이들 항목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공약집엔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100%) 확대’라고 돼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월 최고 9만7000여 원)의 2배 수준인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 또한 수혜 대상이 ‘모든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들이 많다. 가계부채 탕감, 하우스 푸어 대책, 행복주택, 사병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등의 공약도 실제 이행과 정에서 당초 약속 수준에 못 미칠 경우 반발을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

지금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과탄 직전의 경제경생을 위해 올 인 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무제한 통화남발, 자국 통화가치 하락, 환율 상승, 수출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전례 없는 고육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도 환율안정이 아주 중요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출구전략 필요할 수도

선거공약은 지켜져야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선거공약의 엄정 준수 이전에 지키기 어려운 공약은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또한 하나의 선거운동 관행으로 지금껏 내려왔다. 18대 대선에서도 장밋빛 공약이 분명 남발됐다. 이기기 위해 내걸었던 공약 이행이 현재로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면 출구전략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제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인 공약 이행 로드 맵이 나올 것이다. 결론은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관건이란 사실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다는가, 공정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창조경제를 기조로 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큰 기대를 걸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도대로 가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데 잘한 것도 빛을 못보고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기대 이하의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국민과의 불통 속에 일방통행 정책을 편 게 주요인이라 지적을 많이 받는 걸 보면 박근혜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경기 살려 세수 늘도록 유도를 창조 경제 기조로 正道 지켜야

일본 총선에서 장기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누르고 집권했지만 불과 2년만에 정권을 뺏긴 민주당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동양육수당 100% 인상과 전국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의 선심공약으로 모처럼 집권했던 민주당이 재원조달과 정부의 누적 부채문제 등으로 공약을 도저히 지킬 수 없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작년 12월16일 총선에서 자민당에게 다시 정권을 내준 사례를 일컫는 말이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문제는 있다. 조세저항을 불러오지 않고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저성장 기조에서 일자리 확대와 함께 증세를 얼마나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세수 차질은 새 정부에 큰 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추가 재원 27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개발 공약까지 포함하면 대선 약속을 지키는 데 들어갈 돈은 훨씬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려고 기업과 가계를 쥐어짜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려 할 게 아니라 우선 경기를 살려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약도 지킬 수 있다.

공약내용 말바꾸기 논란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새정부 출범 전부터 말바꾸기 논란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6·25 참전언론인회 참전기 출판기로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회(회장 박기병·분회 이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참전언론인들의 6·25 참전기(종군기)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다. 6·25 참전언론인들이 한국전쟁 당시 겪었던 생생한 수기를 모아 책으로 엮어 言論史料로 영구 보존하

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위기문화팀 지원으로 이뤄진 것이다. 2월 말 현재 30여명 참전 언론인들의 육고가 모아졌으며 책이 출판되면 국내 100여개 유명 도서관과 국방부 유관기관과 각 보훈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실록-언론, 언론인의 길 제3집 올해 출간기로

대한언론인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중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그 때 그 현장 못다한 이야기’ 제 3집을 출판한다. 올해 집필 예정자는 50명

이며 출판위원회의를 열어 선정한 뒤 개별 통지한다. ※만 70세 이상으로 집필을 희망하는 분은 3월 말까지 일단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改憲 집권초 추진해야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가는 길

1948년 제헌헌법(건국헌법) 이후 9차례에 걸친 개헌이 있었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이 1987년 제정될 당시까지 39년 동안에 10개의 헌법이 존재한 셈이다. 개헌의 역사는 곧 불안정한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9번의 개헌 중 대부분은 헌정이 과탄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1960년 4월 학생혁명 이후의 제2공화국 헌법,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새로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 1972년의 유신헌법, 1980년 서울의 봄 이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 6월항쟁 이후에 제정된 1987년 헌법은 비록 헌법개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의 제정에 가깝기 때문에 각기 독자적인 공화국 숫자를 부여하여 왔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헌법은 직선제취라는 민주헌법의 열망을 담았지만, 여야8인정치회담의 결과물이므로 제대로 된 헌법이란 논의를 생략된 헌법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겨왔다. 87년 헌법은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의 결과물로서 국가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헌법의 안정을 구가해 왔다. 87년 이전에 10년을 존속한 헌법이 없었던 반면에 87년 헌법은 사반세기를 넘어서서 청년기에 이르고 있다. 이제 헌법의 불안정을 청산하고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 이 시점에서 미래 한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새 헌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야당도 적극동참 의지

최근의 개헌논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개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의 지평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사이 19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을 통해서 집권하면 의원내각제 개헌을 할 것이라는 정책연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의원내각제 개헌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말기인 2007년 초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소위 ‘원포인트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 여야는 그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기 의회 즉 제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약속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헌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이 연구회는 평상시에 국가기관에서 개헌논의를 진행한 최초의 연구단체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서도 개헌논의를 활성화하였으며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집권초기에 개헌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이르러 또 다시 개헌논의를 제기하였으나 만사지탄

의 감을 지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개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특히 야당에서도 개헌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개헌의 시점은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특별기고



성낙인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학)

전당인 국회가 중심축이 되어 개헌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전면적인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합의가능한 부분이라도 개헌이 필요하다. 자칫 개헌이 지체되고 개헌논의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기라도 한다면 일본처럼 개헌 불임국가 될지도 모른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945년 패전 이

(한글), 수도(서울) 등에 관해서도 헌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헌법의 흠결이나 체계부정합성을 치유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전범에 추호의 오류도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1971년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조항은 1972년 유신헌법에 그대로 이식된 이래 현행헌법 제29조 제2항에 존속해 있다.

이와 같이 위헌선언된 조항이 아직까지 헌법에 존치하고 있는 것은 헌법가치를 훼손시킨다.

또한 우리 헌정사에서 1956년과 1960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후보 등록 마감 후에 제1야당의 후보가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 명확히 규정

남북대치 상태에서 자칫 대선이 회화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오늘날 국가는 정보화·세계화·지방화라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보기본권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치를 통한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국가 원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헌법상 사회권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원리로서의 사회복지국가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권력분점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권력구조에 관해서 학자들은 대체로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직선제를 원한다. 그런 점에서 현행 대통령직선제를 회피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통령직선제를 유지하여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5년 단임은 그 사이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 소임을 다한 시점에 이르렀다. 즉 4년 중임이라는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식 부통령을 둘 것이냐 아니면 현행 국무총리제를 유지할 것이냐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그간 계속해서 작동된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 경우 권력분점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의 위상과 좌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각은 의회 다수파의 신임에 기초해야만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직결되는 외교·안보·통일 문제와 더불어 국가가 지향해야 할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 정치에 전념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내치는 내각에 일임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

위헌 선언된 조항 아직도 존재 대통령 4년 중임 등 안착 필요

만 동력을 갖고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지난 개헌 논의의 역사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한다.

국회중심으로 전개되야

개헌은 첫째 무엇보다도 정치적 소용돌이가 없는 상태에서 개헌논의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개헌은 그간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작동되어 왔지만 이제 민의의

후 맥아더 사령부 시절인 1946년에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헌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천황제, 자위대 문제 등과 관련된 좌우 갈등이 주요인이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적 지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 국가(애국가), 국기(태극기), 국어

2013 시산제에 초대합니다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癸巳年 새해를 맞아 올 한해의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始山祭 행사를 갖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산제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산제장소 : 북한산 향로봉 기슭
- ... 집합장소 : 불광역(전철 3호선·6호선 2번출구 구내)
- ... 집합일시 : 2013년 3월 22일(금요일) 오전 10시
- ... 산행코스 : 산제 후 북한산 둘레길 7구간 산행
- ... 문의전화 : 010-7276-6211(정운중 회장)
010-2691-0084(나용경 총무)

▶시산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우는 오찬 장소인 통나무집(02-356-5533·불광1동)으로 오후 1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통나무집은 불광역 2번 출구로 나와 구기터널 방향으로 10분거리. 북한산 생태공원 옆 골목에 있음. 용화사 입구)

대한언론인회산악회

北核 해결전 연합사 해체 안된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가는 길

박근혜정부는 유럽선진국에 버금가는 복지정책제시와 군병역 18개월단축, 반값등록금 등 야당주장을 앞선 복지정책 공약으로 성공적인 선거를 치르고 출범하여 공약을 지킬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국가재정을 풀고 국민의무를 줄이는 인기영합정책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사활을 걸고 풀어야 할 최우선과제는 따로 있다. 2015년 12월 1일자로 해체될 한미연합사(Korea-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살리는 문제이다. 연합사는 노무현정부 때 주권을 찾아온다는 기만선전술로 국민을 속이고 미국을 욕박질러 김일성출생 1백주년 기념행사주간인 2012년 4월 17일 해체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명박정부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단 2015년 12월로 해체 연기를 한미간에 합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北도발 때 전쟁사령부로

한미연합사는 평시에는 한국군은 물론 미군도 지휘통제하지 않는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간의 군사협력과 지휘부훈련을 담당하고 있다가 북한도발이 전쟁수위(Defecon 3)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전쟁사령부가 되어 미군과 한국군을 단일군사지휘체제로 연합하여 작전을 하게 된다. 한미양국대통령 통수권아래 미군 4성장군이 사령관, 한국군 4성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미군 3성장군이 참모장, 한국군 3성장군이 부참모장을 맡으며 그 아래의 7개부 중 5개부는 한국군 장성이, 다른 2개부는 미군장성이 부장을 맡아 통합군을 지휘통제한다. 7부 밑에 계획, 작전, 화력지원, 연습처의 처장은 한국군 장성이며 부처장

은 미군장성으로 조직되어 있다. 북한이 전쟁도발행위를 하면 즉각 연합지휘통제체제가 가동하여 대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6·25와 같은 남침을 해오지 못하고 있다.

美지원 늦어질우려

한미연합사가 예정대로 해체되면 2015년 12월부터 한



정일화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정치학 박사

한국 단독 군사작전 어려움 미국과 빨리 협상에 나서야

반도에 전쟁이 나는 경우 한국군은 한국군단독으로 군사작전을 담당해야 하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다시 들어와 한국군을 도운다 해도 따로 떨어져 각각 독립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연합사 조직을 통해 한국군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 인공위성정보를 비롯한 미국의 초정밀전자정보나 6·25전쟁을 통해 보여준 거대한 미공군 및 해군력의 한반도 지원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비록 미국이 그런 전쟁지원을 한다 해도 백악관 국방부 의회의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이를 담당할 새 조직을 만들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좁은 전쟁공간에서는 그런 지원이 시간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핵무기를 통제할 수단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그날로 북한의 공갈과 침략행위는 노골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휴전 60년체제를 통해 남한은 전쟁방어위주의 군사체제를 유지해 왔고 북한은 천안함 폭침, 청와대기습, 삼척공비침투가 증명하듯 공격체제를 집중적으로 키워왔

어졌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3일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인민군이 과속지세로 대전-대구로 밀고 내려올때인 1950년 7월 17일 이승만대통령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정일권국군총참모장을 불러놓고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엔군의 힘을 활용해야 할 것이니 작전통제권을 맥아더원수에게 대리행사하도록 한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 잘 협조하여 나라를 구하라”고 말하면서 유엔군사령관에게 적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작전통제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체결과 한미연합사령부 구성(1978년)으로 한미연합 방어체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강력한 전쟁억제기구로 발전해 왔다.

연합사해체는 노무현정부가 고의적으로 먼저 미국정부에 요청한 것이고 이명박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체를 조금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3년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박근혜정부가 아무리 새 정부라고 해도 미국에게 해체합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쉽게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미국의 행정부, 의회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연합사 해체연기 정책을 수립하여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잡고 국민지지가 확고한 초기, 적어도 출범 2년 내에 한미간에 성공적인 협상을 벌여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합사해체를 연기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성과가 걸린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다. [4]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

6·25전쟁 동안 5백대의 소련 T34전차와 1천대의 미그전투기, 그리고 1백만 중공군 병력이 맞붙은 국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락거리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 미국은 국경보급선 차단을 위해 하루 평균 1천5백대의 폭격기와 10척의 항공모함을 북한 깊숙이 침투시켜 교량 철도 무기 및 병력집결지를 폭격했다. 작전 중 1,986대의 미군기가 떨어

명절 때 자녀들의 인사말엔 꼭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무병 장수하세요”가 빠지지 않는다.

사람이 늙어 병들면 “어서 죽어야지” 하면서도 병원을 찾게 되고 어서 완쾌되길 바란다. 사실 병 없이 오래도록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의 다 같은 바람일 것이다. 그런데 오래 살려면 무슨 약을 먹어야하나, 무슨 음식을 먹어야하나 하고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왕도 결국 불로초를 못 찾고 5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진시왕이 건강장수의 ‘3快 비결’을 알았다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았을텐데---

그럼 ‘3快的 비결’은 뭔가? 快便(대변을 잘 보는 것), 快眠(수면을 잘 취하는 것), 快食(잘 먹는 것)이다. 그러나 잠 잘자고 잘 먹는 것은 많이 알고들 있지만 변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알고들 있지 않다. 먼저 쾌변을 보자. 노년이 되면 쾌변이 안 돼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호에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이 노인성 변비에대해 남성 고령자 3명중

건강 ‘3快’로 지키자

1명이 변비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애길 한바 있는데 이처럼 노년기엔 특히 배변횟수도 줄어들고 양도 적으며 수분도 줄어 변이 굳는 이른바 변비가 생긴다. 변비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기나 성격이 우울하거나 급한 사람, 그리고 장 기능이 떨어질 때도 생긴다.

변비에 걸리면 날마다 배변하더라도 딱딱하게 변이 나오거나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거나 잔변감이 있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치질은 물론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위염이 있거나 자주 체하는 사람 중의 상당수가 변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대변은 수분량이 70~85%가량 섞인



이보길

·본보 편집위원
·본회 건강포럼간사
·전 KBS해설위원

는 산책이 좋다. 하루 20~30분 걷는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냉수 한 컵을 마신 후 아랫배를 양손 바닥으로 둥근 원을 그리듯 시계바늘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인데 한번 할 때마다 10분 정도 하게 되면 복부가 화끈거리고 손바닥에도 열이 나는 것을 느끼게

것을 정상으로 보는데 긴장과 불안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교감 신경이 흥분되며 대장의 연동운동이 지나치게 항진돼 결국 음식 찌꺼기의 수분 흡수가 지나치게 되고, 수분 함량이 60%이하인 딱딱한 대변으로 변하는 변비를 일으킨다.

변비 치료법은 평소에 적당한 운동이 좋다. 노년엔 무리한 운동 보다는 산책이 좋다. 하루 20~30분 걷는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냉수 한 컵을 마신 후 아랫배를 양손 바닥으로 둥근 원을 그리듯 시계바늘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인데 한번 할 때마다 10분 정도 하게 되면 복부가 화끈거리고 손바닥에도 열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마사지요법을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번 더한다. 귀찮다고 생각 말고 꾸준히 하면 변비 예방과 치료에 반드시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살구 씨 기름을 아침저녁 공복 시에 한 스푼씩 먹고 심한 경우엔 2~3스푼씩으로 늘려서 먹는다.

다음은 쾌면(快眠)을 하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쾌면을 하기 위해서는 기상, 취침시간을 정해서 자고 일어난다. 늦게 자더라도 기상시간이 되면 일어나 생활하되 중간에 잠이 오면 1시간 이내만 잔다. 오후에 햇볕을 쬐다. 비타민D가 몸에 흡수되면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면을 유도하는 뇌세포가 활성화 되어 잠을 잘 오게 해준다. 또한 수면리듬을 되찾는게 중요하다. 20분이라도 걷기를 하면 금상첨화다. 바나나, 감자, 닭고기, 우유 등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게 좋으나 커피, 홍차 등 카페인 음료나, 자극적인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北核해법 억제력 확보가 열쇠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가는 길

2013년 2월 12일 강행된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은 필자가 견지해온 세 가지 가설을 재확인해 주었다. 필자가 지녔던 첫 번째 가설은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설은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북한을 ‘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북한에 인권 의식과 민주화를 불어넣고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 북핵을 해결하는 길이다. 세 번째 가설은 북핵을 만류하는 중국의 기본입장은 불변이지만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개막과 함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동맹’을 해치면서까지 중국이 북핵을 만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이 가설들을 여지없이 재확인시켜 주었다.

국제사회 많은 관전 포인트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을 바라보는 한국과 국제사회에게는 많은 관전 포인트들이 있다. 폭발력의 규모, 핵실험에 사용된 폭탄의 종류, 경량화·소형화 성공 여부, 추가적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의 여부, 북한-이란의 핵커넥션 가능성, 유엔 대북제재의 강도, 오바마 제2기 정부의 북핵 기조, 6자회담의 유용성,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무장 논쟁과 중국의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미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전 포인트들 중에는 비중과 중요성에 있어 한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폭발력에 대해 한국 정부는 6-7kt으로 추정하지만 외국의 전문가와 관련기관들은 10~40kt에 이르는 다양한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와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는 모든 핵무기가 이미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히로시마급 핵폭탄(12.5kt) 하나가 서울 상공에서 터진다면 한 달 이내에 50만 명이 사망하고 수도권 일대가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 이러한 피해 양상은 40kt 이든 6kt이든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나 언론이 폭발력의 규모

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형화·경량화 문제도 그렇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경우, 소형화·경량화나 미사일 탑재와 무관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북핵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 있다. 북한은 무거운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IL-28 등

특별기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모든 수단·역량동원 대응 필요 화해 협력·안보강화 병행 해야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공대를 활용한 핵폭탄의 밀반입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플루토늄 분말을 공중에 뿌리는 ‘더러운 폭탄(Dirty Bomb)’만으로도 한국의 대도시들을 위협할 수 있다. 한국의 언론이 “미사일에 탑재되기 전까지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실험에 사용된 폭탄이 플루토늄탄인가 우라늄탄인가 또는 수소폭탄으로 가는 입문에 해당하는 증폭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인가 하는 것은 한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다. 우라늄탄으로 밝혀진다면 핵무기 대량생산의 서곡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라늄탄은 플루토늄탄과는 달리 핵연료를 원자로 연소 과정이 불필요하며, 우라늄광을 정련하여 농축하면 곧바로 핵탄 원료인 고농축우라늄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농축관련 물품들을 밀수입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2008년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을 때에도 필자는 이것이 비핵화 조치라기보다는 핵무기의 대량생산을 위해 우라늄으로 선회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이제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므로 북핵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핵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를 주목해야 한다. 북핵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을 확산시켰다. 북한은 이런 효과를 믿고 천안함-연평

로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즉, 어떠한 선택도 가능한 무(無)기조의 북핵 대응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새롭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억제와 제재’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주역량, 동맹역량, 다자관계 역량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군사·외교·경제적 수단들이 망라되어야 한다. 군사적 응징수단 강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조건부 폐기,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은 자주적 억제역량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연기, 핵우산 강화, 연합훈련 강화, 한국의 농축·재처리 능력 보유,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참여, 미 전술핵 재반입 등은 동맹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군사제재의 길을 열어둔 유엔헌장 제42조에 근거한 새로운 대북결의안의 채택, 6자회담 체제 개선 등은 다자관계 차원에서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한국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대안들을 검토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이 큰 비용과 후유증을 수반하는 나쁜 행동임을 증명해주어야 한다.

보완 필요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제 북핵과 공존하면서 대처해나가는 일은 박근혜 정부가 맞닥뜨릴 첫 시험대가 되었다. 이를 통과하기 위한 단초는 ‘대북 억제력 강화’에서 찾는 것이 옳다. 즉, 신뢰프로세스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북핵 불용·도발불용·협박 불용’이라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대화와 화해협력 시도는 언제나 필요하지만 억제력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한 뿔과리와 같으며, 넥타이를 맨 외교관들이 국제무대에서 펼치는 핵외교는 근사하게 보이지만 억제력이 없으면 아무도 경청하지 않는 ‘악자의 하소연’으로 전락하고 만다. 대북 화해협력을 시도하는 일과 국가안보를 다지는 일은 상충되는 두 명제가 아니라 동시에 쫓아야 하는 두 마리의 토끼이다.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일과 북한의 핵그림자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로이다. [주]

4면에서 이어집니다.

끝으로 쾌식(快食)을 보면 빛이든 잘 먹으면 좋으나 특히 노년이 되면 자기가 옛적에 먹던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먹던 음식들은 대부분이 찌개와 탕류등 짠 음식이어서 예전 식대로 먹다가는 오히려 고혈압, 당뇨, 심혈관 등 각종 성인병을 앓을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WHO의 나트륨 권장량인 2천mg보다

24배나 많은 4,878mg의 세계최고 수준의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 우리가 먹던 음식에서 나트륨을 크게 줄여 싱겁게 먹고 육식을 줄여 채소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쾌식의 기본이 될 것이다. 참고로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 음식은 사과, 쭉, 찐감자, 바나나, 오이, 복숭아가 있다.

미 시사주간지 TIME이 건강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색을 가진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할 것을 권

하고 있다. 타임은 ‘톱 10 식품’으로 토마토, 시금치, 적포도주, 견과류, 브로콜리, 귀리, 연어, 마늘, 녹차, 블루베리 등을 건강음식으로 선정하면서 이 음식들을 제대로 섭취하면 중병 치유에 효험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은 또 ▲토마토-전립선암과 소화기계통 암 발생률 감소 ▲시금치-아이들의 신경계통 손상 예방 ▲적포도주-심장에 좋으나 1주일에 몇 잔 정도만 마실 것을 충고했다.

타임은 또 ▲브로콜리-유방암 예방 ▲귀리-콜레스테롤과 혈압 강하 ▲연어-혈소판 응고 방지 및 노화관련 질병 예방 ▲마늘-심장 보호 및 항 박테리아 작용을 한다고 전했다.

노년기에 제일 행복한 것은 돈이 최고라지만 우선 건강해야 돈도 쓰고 다닐 수가 있다. 건강하기위해 우리 대한 언론인회 어르신들 모두 ‘3책 비결’을 실천했으면 한다.(이영림 한방병원 원장) [주]

공직자 인사검증 더 엄정해져야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가는 길

청문회 스타도 낙마

존 타워의원(공화)은 1960년대 중반 이래 미국상원 국방위원회의 터줏대감이었다. 24년간 국방위원과 위원장을 지내면서 미국의 국방정책을 좌지우지했다. 특히나 멜빈 레어드, 도널드 럼스펠트, 해럴드 브라운, 개스퍼 와인버거 등 역대 국방장관 인준때 날카로운 송곳 청문회를 주도해 명성을 쌓았다. 타워의 최대의 꿈은 펜타곤(국방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1989년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방장관에 지명된 것. 하지만 밀어줄 것으로 여겼던 샘 넌(민주)등 국방위의 오랜 동료의원들이 앞장서 타워의 인격과 사생활 등을 파헤쳤다. 결국 국방위는 능력 경륜은 인정하나 알콜중독성의 음주습관, 술주정, 난잡한 여성관계와 이혼 등으로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속이 탄 타워는 “취임하면 단호히 술을 끊겠다”는 서약서를 의원들에게 돌렸으나 본회의의 표결결과 찬성 47,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정치 서커스에 춤추는 곰”

“워싱턴의 정치는 이성을 잃었다. 본인은 더 이상 정치서커스에서 춤추는 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첫 임기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앤서니 레이크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해 1997년 재선되자 그를 CIA(중앙정보국) 국장에 지명했다. 상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자 주로 공화당의원들은 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본인과 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들의 사생활까지 들추며 집요하게 추궁하자 발끈해 사퇴했다. 앞의 말은 레이크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남긴 말이다. 미국은 1789년 건국이후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청문회제도(Hearing System)를 상·하원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문회의 종류는 입법, 감독, 조사, 인준(인사)등 4가지며 이중 인사청문회는 상원만이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헌법에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얻어 고위공직자를 임명한다’(제2조 2항)에 근거를 두고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약6,000여명의 공직자를 임명한다. 이중 2,000여명이 청문의 대상이 되나 대부분 서류심사로 통과하고 400여명의 고위공직 후보들은 반드시 상원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행정부의 차관보급 이상 장·차관, 연방의 주요기관장, 대사, 군사령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연방검사등이다. 고위공직자를 정식으로 임명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당선자)이 후보를 지명하면 백악관 인사실(OPP)에서 심사한후 다음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정부의 윤리실(OGE)등에 넘긴다. 후보들은 여기서 사상, 국가관, 경력, 전문실력, 대인관계, 법규위반및 탈세여부, 재산증감, 친

척 친지들로부터 지난 7년간의 평가 등 총233개항에 걸쳐 이잡듯이 검증을 받는다.

이들 자료들은 상원의원들에게 보내져 청문활동에 활용된다. 청문회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에 넘겨져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그러나 보고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표결전에 넘어야할

특별기고



이성춘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전 한국기자협회장

미국선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 ‘不法의 달인 不可’ 풍토 확립을

고비가 있다. 그것은 이른바 ‘Hold(저지·沮止)제도’다. 상원의원 100명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후보에 대해 “문제가 있다” “곤란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표결은 수주일 또는 수개월 지연된다.

한국주재대사로 지명된 도널드 그레그, 캐슬린 스티븐스, (현재의)성 김대사들도 ‘Hold’에 걸려 6~2개월이나 표결이 지연되어 속을 태웠었다.

미국의 고위공직자는 공식 취임때까지 대체로 4단계의 검증을 거친다. 1단계는 대통령(당선인)측의 자체검증, 2단계는 백악관인사실과 FBI등의 검증, 3단계는 언론및 사회각계의 검증, 4단계는 상원 청문회의 검증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지명철회, 사퇴, 인준부결 등으로 낙마(落馬)하게 된다. 1977년 카터대통령은 과거 J.케네디의 명(名)참모였던 데오도어 소렌슨을 CIA국장에 지명했다가 그가 한국전쟁때 징병을 기피한 의혹이 드러나자 지명을 취소했다.

美 대법관 후보 36명 부결

1993년 클린턴이 사상 첫 여성법무장관으로 내정한 조 베어드, 2001년과 2004년 조지 W 부시가 노동장관과 국토안보장관에 지명했던 린다 사베스와 버나드 게릭은 각각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유로 사퇴했다.

얼마전 구글회장과 함께 북한에 다녀온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지사는 2009년 오바마대통령에 의해 상무장관에 내정됐으나 지역소재 건설업체와의 유착사실이 드러나 사퇴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비리와 갖가지 흠이 있는 인사가 고위공직에 앉기위해 인사청문회 등 각종검증을 통과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러기에 선진민주국가라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닌가.

미국 건국 이래 고위공직자 검증과 정에서 지명취소나 사퇴이외에 청문회 이후 상원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대법관후보 36명, 장관후보 15명이다.

그토록 송곳검증, 면도칼검증을 해도 지금까지 어느누구도 ‘심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2000년 6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고위

후보자를 심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좋은 인재들이 공직을 사양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지명한 김용준 총리후보가 재산과 두 아들의 병역면제 등의 의혹이 쏟아지자 사퇴하고, 때마침 이동흡 현재소장 후보자가 국회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불법비리 의혹과 관련, 집중 추궁을 받은데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받아 박대통령 측근들은 ‘사생활은 비공개로, 능력과 전문성 검증은 공개로’ 청문회의 제도개선을 꺼냈다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었다. 박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때인 2005년 이현재부총리가 재산의혹으로 사퇴하자 청문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해 법을 개정하지 않았는가. 탁월한 실력과 경륜을 지녔다해도 이런저런 비리와 의혹등 적지않은 흠이 있는 인물이, 또 사생활과 몸가짐 등 도덕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실력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인물들이 고위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묵인할 순 없지않은가.

공직사회 정화에 큰 기여

인사권자가 진실을 모르거나 또는 내 사람이라고 지명했을때 언론과 사회의 장외(場外)검증, 그리고 국회청문회의 장내(場內)검증에서 걸러내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 인사청문(聽聞) 정신의 참뜻인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조각(組閣) 개각(改閣)등 고위직인사때면 속병(病)을 앓는다. 그토록 유능하다고 내세운 인물이 사실은 백화점을 차릴 정도의 술한 불법과 비리의 혁혁한 실적을 쌓은 달인(達人)임이 드러날때마다 분노와 개탄으로 가슴병을 앓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인사들이 반성하고 사퇴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특정정당의 도움으로 청문회를 통과해 공직에 취임할 경우 병통(病痛)은 심각해진다.

우리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효과에 있어 찬·반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와 일반사회의 정화(淨化)에 소리없이 기여해오고 있다. 대통령도 인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되고, 본인들도 불법과 비리의혹이 지나칠 경우 사퇴해야 한다는 인식이 넓혀지고 있는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비리백화점의 주인’ ‘불법의 달인들’은 아예 고위공직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언론과 사회의 검증, 국회 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 면도칼 검증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선진민주국가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게 아니다. ☞

공직자 임명때 국민(국회)검증의 길이 열렸다. 이해에 이한동국무총리 후보를 시작으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하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현재재판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관위원 등이 대상이 됐다.

“사생활 비공개 검증”에 눈총

2003년 1월에는 법개정으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등 이른바 권력실세 4인(Big 4)이 추가됐고 2005년 7월에는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물론 국무위원과 4대 기관장들은 헌법상 국회의 인준을 받지않게 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되 국회가 검증, 심사한다는 원칙에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고위직을 지명하고 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연후 적부(適否)에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통보한다. 만일 이기한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간의 시간을 더 주고 그래도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하게 했다. 청문회제도가 도입된후 지난 13년간 김대중정부때는 장상, 장대한 국무총리후보 임명안이 부동산투기 의혹등으로 부결됐다. 그후 지금까지 20여명의 총리및 장관후보들이 언론등 사회의 검증으로, 또는 국회청문회에서 불거진 갖가지 불법등의 의혹으로 줄줄이 사퇴했다. 의혹의 단골 메뉴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면제, 논문표절, 각종위법(違法), 금품수수등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명한 새 정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다. 인사발표 이후 총리 등 여러국무위원들에 관한 갖가지 비리의혹들이 꼬리를 물어 국민들의 심기를 어지럽게 하고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지난달 “청문회가 죄인을 심문하

넓어진 세계시장, FTA 활용으로 풀겠습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이 OK할 때까지 세계시장으로 가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 정보제공

- FTA 활용정보 통합 제공
-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 교육 및 홍보

-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lting (교육+컨설팅)

● 애로해소

-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컨설팅

-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FTA무역종합지원센터
T.1566-5114 / okfta.or.kr



한국무역협회

‘오늘의 역사’를 쓴 외곡 정치부 기

‘여성 대통령 기대’ 칼럼 집필

송효빈 회우는 필자의 기자 초년 시절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의 글에 매료되기도 했었다. 직접 만나본 일이 없는 그를 인터뷰하러 간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설레기도 했다. 안국동에 있는 관훈클럽 집필실에서 만났다.

신문을 몇 개 펼쳐 놓고 칼럼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기자로 논객으로 살아온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었다.

전날 인터넷 검색에서 송 회우가 지난해 12월 경제풍월에 쓴 ‘여성대통령 혁신시대, 경제풍월 논객 13년의 소신’이란 제목의 칼럼을 읽었기에 그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첫 여성대통령, 그 자체가 정치적 혁신이고 통합이 시대정신이라며 박 ‘다르크’를 뽑자고 쓰셨던데요.

“박근혜 당선인이 어머니를 잃고 영부인 역할을 할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어요. 그때 가까이서 본 박 당선인에게서 훌륭한 면모를 많이 보았어요. 대통령이 되면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생각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박근혜 정권의 탄생을 확신하고 절필을 선언하셨는데요.

“1999년 8월 20일 경제풍월을 창간한 배병휴 사장의 권유로 경제풍월에 기고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비정을 비평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은 시대정신이며 순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매는 심정으로, 경장혁신(更張革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충언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동양의 등불로 우뚝 설 것이라고 굳게 믿기에 한국일보 35년의 기자생활과 경제풍월 10여년의 논객으로서의 언론인 생활을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펜을 놓기로 한 것이지요.”

-청와대 출입시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본 인상은 어땠습니까?

“잘 하는 게 많았어요. 국가관이 확실했구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테니스도 잘했구, 요가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내공을 키운 것 같아요”

-특히 인상에 남는 일은요?

“기자들과 테니스도 쳤구요. 상당한 실력을 보였어요. 기타도 잘 쳤어요. 출입기자들에게 기타를 치며 유행하는 노래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 때 배운 노래 한 곡 불러보시죠.

“노래를 부를 정도는 안 되고요. 그 때 배운 노래 중에 ‘꽃피는 봄이 오면 반짝이는 날개를 접었나요’ 뭐 이런 가사가 언뜻 생각나는 군요.”

-출입기자들하고 흥허물 없는 대화도 나누었나요.

“기자들이 결혼하라고, 결혼 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하면 씩 웃곤 했지요. 기자들이 다시 채근하면 ‘그 애긴 그만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56)

회우초대석

宋孝彬

인터뷰 : 글 = 호천웅

하세요. 듣기 싫네요.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도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번은 기자들과 오찬을 하고 청와대 경내를 걷다가 제가 농담으로 아내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라고 했더니 ‘와이프요? 국어순화 운동하셔야 겠네요’라고 해서 일행이 파안대소했던 일도 생각나네요.”

‘민정이양’ 질문으로 곤욕

-청와대 출입기자를 5년이나 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좀 해 주시죠? 가까이서 본 박대통령이란 책까지 쓰셨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분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회의 의장일 때였어요. 당시 실권자였지요. 풀기자로 수행취재를 할 때였어요. 순창지방 시찰 길에 비포장 도로에서 쉴 때였지요. 박의장 옆으로 가서 당시 민감하던 민정이양 문제를 물었지요. ‘앞으로 거



“오늘의 역사를 쓰겠다”며 신문기자의 길을 택했다고 술회하는 송효빈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한국일보 35년...퇴직후도 정치논객...이젠 절필

취를 어떻게 하실건가요?’라고. 순간 온화하던 표정이 불편하게 바뀌더니 ‘기자, 당신네들은 이 황금 들판을 봐야지.’라며 호랑이 눈빛으로 쏘아보곤 일어섰어요. 순간 죽었구나 했지요. 지켜보고 있던 신동관 경호차장이 내 옷섶을 끌고 가며 머리를 쥐어박는 등 수모를 주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당시 왕초로 불리던 장기영 사장에게 사연을 말하고 최고회의 출입을 못 하겠다고 했지요. 왕초 장기영 사장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기자는 상가집 개다. 오라고 하는 데 가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는 거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출입 기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 있기는 했으나 별일 없었고 그 뒤로도 얼굴을 마주치는 박정희 대통령은 언제나처럼 자상했고 온화한 미소로 대해 주었어요.”

-역사적인 인물, 박정희를 간단히 평가한다면요?

“한마디로 5천년 민족중흥의 걸출한

지도자지요. 그 양반 보고 독재자라고 하는 데 개인적으로 보면 매료돼요. 그렇게 겸손 할 수가 없어요. 기자들에게 담뱃불까지 붙여 주기도 했지요. 인간적인 매력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어느 회의장에서 일 인데요. 실내공기가 탁하다고 느꼈는데 박 대통령이 직접 일어서더니 아무

말 없이 창문을 직접 여는 것이었어요. 비서한테 시키지 않고 말이지요. 허식이 없고 솔직했어요. 박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말 가운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는 말이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76년 11월 3일 기자단 오찬 후 박근혜 퍼스트레이디와 청와대 경내를 걷는 송효 (왼쪽에서 두번째, 그 왼쪽이 CBS 김진기기자, 맨 오른쪽은 MBC 고 이득렬기자.)

자 - 칼럼니스트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주일특파원 논설위원
· 한국기자협회장역임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사진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송 회우.

대화 나눠 건강챙겨

천석꾼 말아들로 태어나

송호빈 회우는 1933년생이니 올해 꼭 여든 살이다. 충남 대덕군 동면에서 천석꾼의 말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잔병치레를 많이 했다. 그때마다 무당을 불러 빌고 고사를 지내곤 했다. 집안 종형들이 떡 먹고 싶으면 효빈이 아프냐고 했다는 우스개가 전해질 정도였다. 초등학교 2~3학년 때 쯤 해서 진짜 심한 열병을 앓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뒤로 잔병이 없어지고 신기하게도 건강해졌다.

초등학교 때는 창씨개명을 안했다고 일본인 교사로부터 회초리를 맞기도 했다. 고종황제의 시종을 지낸 송종국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꾀꾀이 견뎌 냈고 성장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집에서 20리쯤 떨어진 대전중고등학교로 거뜬히 통학하면서 끈기와 인내를 키웠다.

대학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로 진학했다. 마침 고모님이 적선동에 살아 기숙

하며 편하게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을 다녔다. 처음 온 서울에 놀라고 감탄했던 일이 새롭다. 이렇게 멋지고 좋은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학원 1학년을 마친 후 군에 입대했다. 군제대 후 대학원에 복학하려니 심드렁한 생각이 들었다. 1958년이였다.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관문점 취재 등으로 이름을 날리던 최병우 기자가 중국과 대만간 긴장의 현장이던 금문도 취재 중 순직한 기사를 읽었다. 20대 청년 송호빈에게 큰 감동이었다.

면접때 장기영 사주에 감명취

그래서 다음해인 1959년 한국일보 입사시험을 봤고 기자가 됐다.

-면접시험 때 멋진 답변으로 장기영 사장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다면서요.

“면접 시험관으로 나온 왕초 장기영 사주가 묻더라구요. 힐문조 었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 신문기자가 되려고 하나?’ 순간 당황했으나 정신을 추스르고 대답했지요. 대학 때부터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특파원의 순직기사를 읽고 감동해서 기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학도가 되려고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알아내는 역사보다 오늘의 역사를 쓰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난 뒤 희망부서를 적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경제부가 편하다고 해서 경제부를 지망했는데 정치부로 발령이 났다.

-경제부가 아니고 정치부로 발령이 나서 속상하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았구. 사실 경제부니 정치부니에 대해서 잘 몰랐지요. 그런데 일주일 쯤 지났을까? 왕초 장기영 사주가 부르더라구요. ‘오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신문기자가 되겠다고 했지. 그러려면 국회와 정당이 제격이야. 열심히 해봐’ 라는 격려를 받았어요. 큰 힘이 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부터 ‘오늘의 역사를 쓴다’ 는 각오로 열심히 했구요. 그 명제가 ‘나의 신문 기자관’ 이 되었습니다.”

송 회우는 35년이 넘는 한국일보 재직 기간 내내 정치부기자였고 정치담당 논설위원이었으며 퇴직 후에도 정치담당 논객으로 한길을 걸었다.

1962년 정치부 기자로 뿔 때 은행지점장이던 사촌형의 돈암동 댁에서 기식했다. 그 형수의 소개로 맞선을 봤다.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국립의료원 약사로 일하고 있던 유종숙씨였다.

“아내덕에 부패기자 안돼”

-결혼 할 때 사모님의 어디가 그리 좋으셨어요.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며 연애를 할 때였어요. 찻집에서 었어요. 핸드백에서 껌 한 개를 꺼내더니 반쪽을 잘라 권하더라구요. 근검절약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호감이 더 갔고 그 길로 믿음과 정이 깊어져 결혼 했지요. 결혼 후 아내가 약국을 차려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생활 할 수 있었구요.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⑬

小食과 禁食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소식(小食)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최근 소식은 물론 금식(禁食)이 장수와 당뇨병 치료에서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보도 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학술지 PLOS ONE은 스페인 국

립암연구센터 책임자인 마리아 블라스코 박사 팀이 출생 3개월 된 어린 쥐를 대상으로 평소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40% 줄여 주면서 죽을 때까지 관찰한 결과 수명과 관계가 있는 말단소체(末端小體 · Telomere) 길이가 대조군에 비해 더 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이 포유류에도 나타나는지를 보기위해 암과 같은 노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암은 물론 나이와 관련이 있는 골다공증, 포도당흡수율 그리고 운동조절기능 등이 증가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같은 실험을 말단소체 효소(telomerase · 텔로미어 길이의 단축을 막고 염색체를 보호하는 효소) 생성을 많이 하는 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소식그룹의 경우 수명이 20% 늘어났고 건강상태도 좋았다고 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수명연장 현상은 소식에 의해 암 발생을 40%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정치부기자 하면서 어느 정치인보고 술한 잔 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내덕에 부패기자가 안됐어요. 고맙지요.”

유종숙 사모님은 뇌종양으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15년 전에 별세했다.

사모님 병치레에 모았던 돈이 모두 들어간 노년의 송 회우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송 회우의 형편을 들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원로 언론인에 대한 생활지원에 언론계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절박하다는 생각을 했다. 송 회우 보다 더 어려운 원로 언론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들네와 합치고 난 뒤 손자가 학교에서 가족그림을 그린 것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 그리고 형과 저 예요.” 라고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없네?”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라고 해서 허전했고 죽은 아내 생각이 더 했다고 털어 놓았다.

인터뷰를 대충 마무리하고 식당에서 막걸리를 곁들인 오찬을 나누며 미진한 질문을 몇 가지 추가 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망나니 동생 품고 가야지요.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하고 나가야 해요.”

미국의사협회 기관지 JAMA는 2012년 12월 과체중이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4,503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1,200~1,800칼로리 이상의 음식 섭취를 금하고 1주일에 175분 이상 운동을 하도록 하는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통해 10%정도에서 약물

도움 없이 혈당수치가 정상이 되었다는 미국 질병관리 및 예방본부 에드워드 그레그 박사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미국 남 캘리포니아 대학 발터 롱고 노인학 교수는 금식이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지난해 학술지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발표했다. 그는 쥐를 통한 실험에서 항암치료하기 전 2일, 치료 후 1일간 단식한 경우 치료효과가 항암치료만을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설명했다. 롱고 교수는 2008년 단식을 하면 항암치료제 투여 때 정상세포가 보호받는다는 연구결과에 이어 2010년 항암치료 전 단식을 한 경우 부작용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를 학술지 Aging과 미국 암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간헐적 금식 역시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 금식하는 방법으로도 일상적으로 금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4]

-주일 특파원을 지내셨고 ‘이것이 일본이다’와 ‘다시 일어난 일본’ 등 일본 관련 논문과 저서도 있으신데 현 시점에서의 대일 관계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본을 철저히 알고 철저히 대응해야 해요.”

-8순이신데 약주도 잘 드시고 건강하시네요.

“기력이 약해진 감이 좀 들기는 하지만 모든 게 괜찮아요. 매일 걷는 게 최선의 건강 비법이지요. 청운동 집에서 관훈동 관훈클럽 집필실까지 걸어가서 신문도 보고 칼럼도 챙겨 보는 게 일과지요. 그리고 옛 언론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즐거움이구요. 그리고 짬이 나면 대한언론인회에 들러 아는 얼굴들 보는 것도 기쁜 일이지요.”

송 회우는 지난 2005년 중앙언론문화상을 받았다. 이때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동아일보기자 시절 최고회의를 같이 출입하던 송 회우를 회고하며 남긴 축하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송 후배는 평소 얌전하게 보이지만 취재 경정이 붙으면 선배도 알아주지 않는 맹렬기자였답니다.” [4]

‘북핵 억지력 확보’에 이상한 반론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2월12일 북한의 3차 지하 핵실험은 전세계에 충격파를 몰고 왔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1킬로톤, 2009년 5월 2차는 2~6킬로톤 규모였으나 이번에는 6~7킬로톤인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20여년 입으로 비핵이 유언이라고 노래하며 뒷전에서 핵무기 능력을 키우는 양동작전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온 북한에 김정은의 등장으로 고르바초프식 개혁·개방이 일어날 것이라던 일부 좌파 매체들의 예측도 얼마나 황당했는지 드러났다. 일본 아사히는 13일 사설에서 “고립국가에 미래는 없다. 북한은 스스로 관계를 전진시킬 호기를 부렸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심화하여 체제의 安泰가 도모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졌느냐”는 직설적인 언급으로 북핵 실험을 비난했다. 퇴임을 앞두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은 일각의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애국적 생각을 높이 평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 공조를 해서 (북)핵을 포기시키는 게 목표인 만큼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그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나 정몽준 전 대표도 핵 억지력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가세했다. 신문들은 일제히 북핵 실험을 비난했지만 핵 무장론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2015년 말의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등 억지력 확보에 대해서는 좌·우파지의 논조가 엇갈렸다. 많은 신문들이 북핵을 억제할 중국의 결단을 강조했다.

“한국, 원치 않는 결단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13일 사설에서 “한국과 한국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사를 북한의 처분에 맡기는 것보다는 상당한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선 ‘원치 않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이 절박하게 실감토록 만드는 것”이라며 핵무장 카드를 염두에 둔 논지를 펼쳤다. 조선은 14일 “북한이 핵무장을 끝내면 이 지역에서 핵을 안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만 남는다. 연일 중국과 부딪치고 있는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면 한국도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라고 핵확

산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며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16일 ‘중국은 동북아 핵 도미노 원하는지 자문해야’ 사설에서 “국제사회는 중국을 주시한다.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가 달리 없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좌파지 “北 선제사용 않을 것” 주장 “방위력 증강” 촉구 우파지와 상반

중국의 결단은 북핵 제동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도 중국은 ‘무늬만 규탄’을 하고 있다. 북한이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북핵에 국민 생명을 맡겨야 하는 동북아 국가들은 핵 무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핵 도미노가 눈앞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원하는 미래인지 묻게 된다”고 썼다.

한편 동아일보는 15일 사설 ‘고개드는 애국적 핵무장론, 현실도 고려해야’에서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반발할 것이며, 일본을 자극해 군사적 재무장과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구책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 즉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명제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북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6자 회담을 비롯한 20여년에 걸친 대화가 북핵 개발에 무력한 채 시간만 벌여 주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전작권 환수 연기주장 폄하도

우파지들은 대체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현 단계에서의 대안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일보

는 16일 “북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핵 무장론이 제기되지만 현실성도 문제려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의 핵무장 시도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14일 ‘무분별한 대북 강경론을 경계한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를 알릴 뿐”이라고 공갈을 쳤다. 중앙일보는 21일 ‘남한 최종 파괴 협박하는 북한’ 사설에서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남한을 핵 인질로 삼아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으로 남한 사회를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속셈을 정확하게 읽고, 외교와 군사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핵전쟁은 공포의 균형이 막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핵전쟁이 없었던 것은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이었다. ‘핵무장 가능’이라는 카드도 정치·군사적으로 유용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박병광 연구위원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이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3일 사설에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솜방망이 제재와 경고로는 북한의 핵 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는 제재 조치를 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일보는 13일 사설에서 “지금부터의 대북·안보 정책은 북한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니케이는 13일 북핵을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고집하는 약자의 공갈”이라고 분석했다. 니케이는 “독재국가들은 질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하지만 여론을 중시하는 민주국가는 군사적인 전쟁도, 봉기도 바라지 않는다는 걸 북한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먼저 핵무장을 하고 미국 등과 줄다리기를 한다.

김정일 시대부터 변함없는 북한의 전략이다. 위험도를 높여가는 약자의 공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 일본 한국은 전에 없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갈파했다. 국가 안보에 미증유의 위기국면이다. 신문들은 북핵을 억지할 방위력 증강 문제에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 무기의 열세로 고난을 겪은 우리에게 방위력 증강은 생존본능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戰爭史가 이를 증명한다. [국문]

건강포럼 강의 재개

3월 16일 이윤수 비뇨기과

겨울철 3개월 동안 휴강했던 ‘토요건강포럼’이 오는 16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명동에 있는 ‘이윤수 비뇨기과’ 홀에서 열린다. 연사는 전립선 전문의인 이윤수 박사다. 이 박사는 현재 대한언론학회 회원들에게 4년째 경로차원의

진료비로 진료와 치료 봉사를 하고 있다.

이번 건강포럼에서는 최근 노년기 남성들에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질환과 전립선암에 대해 알아본다.

전립선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의 고령화가 첫 번째 이유다.

특히 전립선암은 발병률이 암 발병률 가운데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60대 중반에 발병하는 등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생활의 서구화가 전립선 질환이 증가하는 원인이다. 과거엔 호박,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 채소와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마늘을 주로 먹었다.

이런 식품들이야말로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식품들이다.

하지만 요즘엔 식습관이 서구화돼 육류를 주로 먹으면서 전립선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건강포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과 치료, 전립선암의 원인과 치료, 전립선암 예방 식단, 청장년층이 앓고 있는 전립선염의 종류와 치료방법, 전립선 건강을 위한 수칙 등을 함께 알아보고 전립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국문]

종편 시사프로그램 '눈길'과 '눈총'

방송정책, 진흥과 규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환경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맞춰 발족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새 정부에서 지상파와 종편, 보도 전문 프로그램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남기고 케이블, 위성, IPTV(인터넷프로토콜방송)의 정책과 규제는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바로 이 문제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어도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순조롭지가 못해 새 정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힘차게 시작되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의 새 임기가 방송정책 때문에 험클어진다는 것이 방송에게는 앞으로 두고두고 짐이 될지 모르겠다.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뒤쳐진 우리의 정보통신산업과 기술을 진흥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방송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은 방송을 지상파와 종편, 보도 전문 케이블방송과 일반케이블, 위성, PP(프로그램 공급자), IPTV로 이원화해서 규제와 진흥을 맡는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 현재도 일부 거대 PP의 독과점이 더욱 심해져 불균형 발전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장관 일인의 독임제 기구인 일반 행정부처에 규제와 진흥을 함께 맡길 경우 방송의 생명인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 점에 대해 우려하는 학자들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한후 여야의 정치권에서 시급한 새 정부의 정상적 출발을 위해 광고 업무를 방통위로 되돌려 주고 방통위를 중앙정부조직으로 존치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 진흥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협상의 물꼬를 터놓고 있지만 2월이 다 가도록 타결이 안 돼 결국 정부 조직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새 정부가 출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곧 결론이 나겠지만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 방송의 이원화가 규제, 진흥정책 면에서 일률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면 비대칭적 진흥, 규제는 경쟁적 상호 보완의 기능도 가질 수 있다.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방송의 제일의 기능으로 꼽히는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은 합의제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운용을 얼마나 합목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제도는 최소한의 보장일 뿐 제도가 곧 조직의 기능과 목표를 극대화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방송 정책 부서가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기고도 정책 목표를 만

족시키지 못해 또 다시 조직을 바꾸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방통위 발족 직후 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과 방송위원회 출신 공무원 사이에 업무영역을 두고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통신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 예견되자 5년여 만에 가까스로 가라앉았던 양 부처 출신 직원간의 영역싸움이 재연돼 정통부 출신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업무를 방통위에서 떼어가려고 싸운다는 소리가 요란한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 미비에서 빚어지는 우려가 현실화하면 시청자의 감시와 방송계의 투쟁과 노력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민의 민주적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본다.

다. 제도적 미비는 무엇보다 방송계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종편이든, 위성이든 더 이상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통해 영역을 넓히거나 이익을 지키려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고 결연히 투쟁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감으로써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제도가 방송의 틀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방송 자신의 힘으로 방송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정부조직개편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 것이고 방송이 국민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편 방송 선정성 문제

종편 출범과 함께 몇몇 시사프로그램이 보여준 과격적인 진행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새로운 출발로 극심한 시청률 경쟁을 통해 안착하려는 노력이었지만 기존 공중파 방송의 도식적인 뉴스 진행방식에 지루해 했던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더구나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종편이 기민하게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신속적으로 편성해 시청률을 수직적으로 상승시킨 점은 종편 입장에서 커다란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계나 학계의 일반적인 예상을

방송시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깨고 종편이 출범 일 년 만에 일정수 준에 안착한 것도 이 같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방송진행 방식을 과격적으로 깨뜨리는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출연자를 섭외해 자극적이고 분쟁적인 방송을 하고 불필요한 논쟁

을 유발하기도 하는가 하면 진행자의 막무가내식 자기주장, 출연자의 말쑥기, 가로채기, 진행자 자신의 흥분 등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물론 대선정국에 종편의 과격적이고 일시적인 흥미를 주는 이러한 방송 진행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정책의 차이를 분명히 해준 것 등 상당한 역할을 한 점은 높이 살 수 있다. 방송진행자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를

10건으로 가장 위반이 많았고 이어 MBN 7건, TV조선 6건, JTBC 4건 순이며 지상파는 MBC가 가장 많은 8건을 기록했고 SBS 2건, KBS 1건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심의 대상이었던 채널A의 경우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법정제재 5건, 행정지도 1건의 제재를 받아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진행자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겠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감동

1월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2013년 동계스페셜올림픽이 129개 나라에서 4,200여명의 지적장애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개막돼 감동의 인간 드라마를 보여주었고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특별 편성을 통해 안방으로 전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물론 참가 선수 전원이 수상하는 감동을 생생히 전했고 한 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 한 시간도 더 늦게 도착한 선수를 격려하는 응원단도 드라마의 주인공임을 생생히 전해준 것은 오랜만에 방송의 공공성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높이 살 만하다.

개막식 하루 전 KBS '아침마당'은 선수들과 부모들을 함께 초청해 동계스페셜 올림픽이 패럴림픽과 어떻게 다른지, 경기내용과 진행방식 등을 소개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여준 것도 성공적인 세계스페셜올림픽 개최의 바탕이 됐다고 하겠다. 더구나 개막식에서 혼자 애국가를 부른 21살의 나이임에도 겨우 초등학교 5~6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키를 가진 박모세군이 미리 스튜디오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세상 언제 어디에서 부르고 들었던 애국가보다 더 감동적이었고 시청자들이 눈물을 펄펄 쏟게 만들었다. 박군은 임신 5개월에 뇌가 밖으로 흘러나와 의사의 임신중절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강한 집념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나 뇌수가 흘러나와 대뇌의 70%와 소뇌의 90%를 잘라내 며칠밖에 살 수 없고 기적같이 산다고 해도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할 것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5살에 갑자기 말문을 열고 주위의 음악을 따라 하기 시작해 노래를 불렀다면 한쪽 눈으로 겨우 보고 혼자 잘 걷지도 못하면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겠느냐고 묻기가 무섭게 스튜디오 한 복판에서 애국가 일절을 당당하게 불렀다.

박군의 애국가는 1월 29일 밤 평창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서 다시 한 번 울려 퍼져 온 국민을 감동시켰다.

방송은 개막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해 국민들에게 스페셜올림픽의 의의와 목적을 이해시키고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훈훈함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7]

과격적 진행에 시청률 상승곡선 정치적 편향-말쑥기등 문제 노출

대신해서 출연자들이 각기 자기 시기를 활용해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이야기 할 수 있게 정리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때문에 진행자 자신의 이야기나 의견은 최소화하면서 출연자들이 하고 싶은 말,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행자의 겸손이 전제되어야 한다.

방송사가 진행자에게 프로그램을 맡길 때에는 당연히 진행자의 캐릭터를 살려 특색 있는 진행을 하도록 하지만 진행자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출연자를 욕박지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흥분해서 출연자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라는 것도 아니다. 방송에서 진행자는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자신을 나타내려는 욕구를 숨길 수 없다. 종편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앞으로 자기 절제를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억지로 끌어안은 시청자들을 지속적으로 붙들어 댈 수 있을 것이다. 종편의 자극적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의 문제는 통계로도 뒷받침 된다.

대통령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66건의 대통령선거방송 심의 기준 위반 내용 가운데 종합편성 PP가 절반이 넘는 34건(52%)이나 되고 지상파 방송 23건, 보도전문 PP 4건, 일반 PP 5건 등이다.

채널별로는 종편 가운데 채널A가

일본 규슈 화산재앙-천혜온천 두 얼굴

짧은 일정에 긴 여정이었다. 지난 2월 13일부터 4일간 일본 관서지방의 대표적인 관광지 오사카의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 교토의 청수사, 나라의 동대사, 고베의 메리켄 파크 등을 둘러본 뒤 1900톤급 크루즈를 타고 규슈지방으로 이동했다. 신칸센 열차로 3시간 거리가 밤 배로 12시간 넘게 걸렸다.

배 안에서 온천욕을 하고 화려한 조명의 연륙교를 바라보며 아사히 생맥주로 목을 축인다. 아소 활화산에서 지구의 에너지를 느끼고 벳부 야외온천장에서 ‘두한족열(頭寒足熱)’의 호사를 누렸다. 동화 같은 마을 휴후인은 시간이 정지된 듯 느낌의 미학이 묻어난다.

학문의 신으로 존경받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모신 후쿠오카의 ‘디자인 후텐만구’의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려 봄을 먼저 만났다. 그 가운데 화산의 재앙과 천혜의 온천이 공존하는 규슈의 두 풍광을 소개한다.

숨 쉬는 지구 아소 활화산

살아있는 화산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아소산(阿蘇山) 탐방일정은 늦은 오후였으나 날이 흐려 포기하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서둘렀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관광버스가 그르렁거리며 힘겹게 오른다. 드넓은 평원과 울창한 삼나무숲, 그리고 구사센리(草千里) 호수가 이곳이 화산지역임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답다. 쌀무덤(米塚)이라 불리는 고메즈카를 차창에서 바라보았다. 거대한 왕릉 모양으로 정상이 움푹 파였다. 아소산의 신이 쌀을 쌓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기생화산(寄生火山)이다.

일본에서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아소산은 5岳을 통칭하며 분화구는 中岳인 나카다케 봉(해발 1,506m)에 위치해 있다. 정상이 가까워지자 구름 같은 연기가 물실물실 뿜어져 나온다. 아소산 로프웨이에 도착하니 유황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화구 주변에는 매우 강한 가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천식이나 기관지 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분화구 견학을 금지합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나온다.

화산활동과 풍향에 따라 수시로 입산을 통제한다. 91명이 정원인 대형 곤돌라에 올랐다. “화구까지는 100m로 약 4분 소요된다.”는 한국어 안내 방송이 나오고 한국어 안내지도까지 비치되어 한국관광객들이 이곳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짐작 간다. 곤돌라에서 내려서도 통제구역이다. 바람이 관람객 쪽으로 불면 또 기다리거나 포기해야 한다. 과란 신호등이 켜져야 분화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로프웨이 운행이 1년에 30%라니 분화구를 볼 수 있는 날은 연중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드디어 분화구 목책 앞에 섰다. 분화구에 고인 에메랄드 물빛이 신비롭다. 유황냄새 풍기는 희뿌연 연기가 무더기로 피어오른다. 발아래 펼쳐진 분화구를 바라보니 지구의 에너지에 전율을 느낀다. 분화구는 남북 1km, 동서 400m에 깊이는 150m로 세계 최대의 칼데라이다. 칼데라의 색은 분화구 내부 깊은 곳의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한다. 1,000

도 가까이 펼 펼 끓는 분화구 내부를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고 하니 행운이다.

화산의 수명은 100만년. 분화와 폭발과 휴식을 반복하다가 사화산에 이른다고 한다. 아소산 분화구는 생성된 지 30만년 쯤



글·사진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아소 활화산 분화구에 고인 에메랄드 물빛이 신비롭다. 유황냄새 풍기는 희뿌연 연기가 무더기로 솟구친다.



아소산 가는 길목 쌀무덤(米塚)이라 불리는 고메즈카는 寄生火山이다.



벳부 가마도 지옥온천. 머드팩 빛깔에 증기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된다니 젊은 활화산에 속한다.

분화구 부근에는 콘크리트 대피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았다. 일본의 활화산은 108개로 언제 터질지 불안하지만 2만 8천여 개에 이르는 원천을 제공하

명이 찾는 온천휴양지다. 온천수가 넘쳐 70%가 바다로 흘러든다니 아깝고 부럽다. 칸나와 온천마을의 ‘호탄온천탕’을 찾았다. 온천료 700엔에 유카타 대여료는 300엔. 온천탕 시설은 낡았지

니 자연의 섭리는 공평하다.

따뜻한 낭만 벳부 온천욕

하얀 수증기가 도시 곳곳에 뿌옇게 뿜어져 나온다. 어디든 땅을 파면 온천수가 팔팔 솟아져 나올 것 같다.

일본 규슈지방 남단에 위치한 벳부는 한 해 1000만

만 야자수가 2층 높이의 천장을 뚫고 서있어 운치가 있다.

쭙고 긴 겨울의 잔해를 씻어내며 온천욕의 호사를 누린다. 증기 한증막에서 땀을 낸 뒤 흐르는 물속을 걷는 보행욕이 색다르다. 황토바닥에 앉아 쏘아지는 폭포수를 맞으니 어깨의 굳은 근육이 풀린다. 온천의 따뜻한 김을 쐬는 온천흡입탕은 칼칼한 목을 부드럽게 해준다. 모래온천탕은 남녀공용으로 유카타를 입고 들어간다. 해변의 모래짐질처럼 파곤한 모래 속에 누워있으니 온천의 온기가 스며든다.

마지막 코스로 노천온천탕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머리를 욕탕 난간에 기대다. 수증기가 곰실곰실 몽환적으로 피어오르고 한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은 삼나무가 뿜어내는 숲의 향기가 상큼하다. 차가운 대기의 청명한 기운과 뜨끈한 온천수의 조화가 ‘두한족열’의 노천욕 묘미다. 아침에 일어나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혈액순환에 좋다는 원리와 비슷하다. 머리가 멍청해지며 심신의 피로가 눈처럼 녹는다.

삶이 힘들어 뇌신경을 쓰다보면 불기운이 머리로 올라가 뒷골이 땅기고 화병이 생기기에 머리를 늘 차게 하는 게 건강 유지에 좋다고 한다. 대나무를 이용하여 온천수를 적당한 온도로 식혀주는 과정도 인공이 가미되지 않아 신뢰가 간다. 호탄온천수는 신경통, 만성소화기 질환에 효능이 있다기에 배불뚝이가 되도록 마셨다.

온천을 마친 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도심 뒷골목을 어슬렁거리며 산책했다. 산자락은 물론 집 안 배수구에서도 모락모락 수증기가 솟아 온천도시를 실감한다. 골목 한 귀퉁이 낡고 초라한 단층 온천탕은 입욕료 100엔이라 써 놓았다. 60·70년대 한국 동네 목욕탕처럼 후져서 더 정감이 간다. 벳부의 명물은 지옥온천 순례. 약 1300년전 화산작용으로 뜨거운 증기와 온천수가 분출되면서 형성된 지옥온천은 마치 연옥(煉獄)을 연상시킨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돌 사이에서 증기가 새어나오는 모양이 화덕을 닮았다는 가마도 지옥온천에 들렀다.

작은 연못에 고인 온천수 빛깔이 다채롭다. 푸른빛의 온천수는 온도가 낮을수록 결정체는 높아 바다색을 띤다고 한다. 산화된 철 성분으로 붉은 빛도 있고, 머드 팩 같은 진흙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수증기가 풍선처럼 부풀다. 관광안내원이 나와 솟아나는 수증기에 담배연기를 뿜으니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알칼리성인 증기에 산성인 담배연기를 뿜으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구름층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골초인 내게 꼭 맞는 직업이다”고 했더니 일행이 “취직하라”며 맞장구친다. 온천수에 익힌 계란이 날개돋친 듯 팔린다. 관광객이 계란을 사면서 환전한 엔화를 봉투째 판매대에 두고 갔다. 종업원이 주인을 찾아 나섰고 팔순의 한국 여성관광객이 분실자로 확인됐다. 돈 봉투 주인을 찾아주는 젊은 종업원은 지옥온천의 천사를 닮았다. ☞

溫故知新

소지마립간과 벽화부인



황원갑

·본회 전문위원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물었던 것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 했는데, 내사 참말로 죽을죄를 졌네예! 그렇지만, 소승이 이 궁금증을 풀지 않고서는 도저히 극락왕생하지 못하겠는 기라예! 마리칸께서 우찌 알았는 공 시원하게 갈차주시면 죽어도 원이 없겠어예!”

“죽은 귀신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그동안 짝퉁이긴 하지만 부처님을 모신 중노릇을 했으니 내 갈차주꾸마. 니도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알고 있제? 내 오늘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느그들의 낫일을 본 까마귀와 밤일을 본 쥐로부터 특별보고를 안 받았겠노? 그래서 다 알았지 뭐꼬?”

그렇게 하여 소지왕의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은 처형당했고, 노인이 나와서 편지를 준 그 연못을 서출지(書出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거문고갑사건’, 일명 ‘서출지사건’의 전말이다.

그런데, 왕비 선혜부인과 과계승 묘심을 처형했다는 일연선사의 〈삼국유사〉의 이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 김대문의 〈화랑세기〉에 따르면 소지마립간과 선혜부인은 딸 보도공주를 낳았다. 또 선혜부인은 이 ‘거문고갑사건’에서 보다시피 묘심과 통정해서는 둘째딸 오도공주를 낳았다. 그러니까 간통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다면 둘째딸은 낳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신라 상류층의 성 풍조는 매우 자유분방했고, 왕실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근친혼도 성행했다. 따라서 간통죄란 있지도 않은 죄명으로 왕비가 처형당하는 일은 없었다.

자고로 인간사란 정(正)이 있으면 반(反)이 있고, 동(動)이 있으면 반동(反動)도 있게 마련이다. 젊은 중과 몰래바람을 피우다가 망신을 당한 선혜부인도 먼 뒷날 소지마립간의 늦바람에 무던히도 속을 썩인다. 소지마립간 22년(500). ‘거문고갑사건’, 일명 ‘서출지사건’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난 뒤였다. 마립간은 침전을 나서서 정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근래 들어 소지마립간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오직 하나, ‘기계’의 성능이 현저히 감퇴됐기 때문이다.

후궁의 수많은 미인 가운데서도 그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회춘의 명기(名器)가 없었던 것이다.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어 육존아우인 지도로(뒷날의 지증마립간)를 다음 왕위후계자인 부군(副君)으로 삼은 것도 그렇거니와, 성기능까지 감퇴됐으니 이래저래 기분이 불유쾌했다.

정원을 거닐던 소지마립간은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가느다란 초승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미인의 눈썹처럼

요염한 초승달… 그랬다! 그 달은 영락없이 어여쁜 벽화의 눈썹 같았다. 임금은 어둠속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늙은 소지마립간의 가슴에 늦바람의 불길을 지른 벽화는 누구인가. 그녀는 오늘의 경북 영주 땅인 날이군의 칸섬신공 파로와 벽아부인의 딸이다.

소지마립간이 날이군에 행차하여 절세미녀로 이름난 벽화를 처음 본 것은 불과 한 달 전이었다.

비록 겉으로는 민정시찰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날이군에 사는 방년 16세 벽화가 경국지색이란 비밀보고를 받고 실물 확인 차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왔던 것이다. 마립간이 변경 순시차 날이군으로 행차한다는 소식을 들은 파로는 접대에 무진 신경을 썼다. 왜냐하면 마립간을 직접 모시는 이번 기회야 말로 서라벌 중앙정계 진출과 출세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성 밖 멀리까지 마중 나가서 소지마립간을 집으로 맞아들인 파로는 온갖 산해진미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상을 차리고 환영연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립간의 잠자리에는 자신의 아내 벽아부인을 들여보내 원로의 객고를 풍도록 했다. 참으로 눈물겹게 지극한 정성이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틀 뒤 마립간이 서라벌로 돌아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바쳤던 것이다. 그런데 그 선물이 바로 자신의 외동딸 벽화였다. 곱게 단장시킨 벽화를 울긋불긋 화려한 비단옷으로 둘둘 감아 수레에 태워서 통째로 바쳤던 것이다.

“이기 뭐꼬?” 수레를 열어본 소지마립간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가다가 먹으라는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뇌물로 바친 금은보화도 아닌, 눈부시게 아름답게 꾸민 벽화였던 것이다. 소지마립간이 할 말을 잃고 바라보자 벽화도 고개를 들어 마주 쳐다보는데 쌍눈 눈웃음치는 그 교태가 늙은 마립간의 애간장을 살살 녹였다. 요염하기가 장차 서라벌을 울릴 ‘색사의 여왕’이 될 소지가 다분히 엿보였다. 소지마립간은 그만 첫눈에 맛이 가고 말았다. 제법 할 줄 아는데! 마누라에 이어 딸까지 바쳐? 파로 이 친구가 근래 보기 드문 충신이구만!

그런데, 자신은 공식적으로는 민정시찰과 영토순시를 나온 마립간-대왕이 아닌가. 어찌 공공연히 흰한 대낮에, 그것도 대소 신료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하의 딸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소지마립간은 눈물을 머금고 빈손으로 환궁했다. 그것이 벽화를 알게 된 경위였다. 그때는 신하들의 눈도 있고 해서 체면상 그냥 돌아오고 말았지만, 그렇게 서라벌로 돌아온 다음부터 한시도 그림보다 아리파운 벽화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날 줄 몰랐던 것이다.

며칠 뒤 소지마립간은 백성의 옷차림으로 변장하고 몰래 황궁을 나섰다. 소지마립간이 예고편도 없이 나타났건만 파로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는 표정이었다. 한마디로 능글맞은 친구였다. 그렇게 해서 소지마립간은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벽화, 풋사과처럼 싱싱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절세미녀 벽화를 안을 수 있었다. 한번 열린 창문으로는 바람이 계속 드나들기 마련이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소지마립간은 벽화의 미색에 빠져 결핍하면 정무를 팽개치고 날이군을 다녀왔다. 그러니 70고개를 바라보는 노구가 어찌 혹사를 견디랴. 게다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는가. 임금의 미행은 얼마 못가 대궐 안에서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급기야는 민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날도 변복을 하고 날이군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고타군, 오늘의 안동 땅에서 묵고 가게 되었다. 집주인은 노파였다. 저녁상을 물리고 임금이 노파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요즘 사람들이 지금 마리칸을 우찌 생각하고 있는교? 정치를 잘 한다꼬 보느교?” 그러자 노파가 망설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어데예! ‘노사모’ 아니, ‘소사모’ 같은 열라들이야 마리칸이 훌륭한 분이랴꼬 하지예. 그렇지 만 나는 마리칸이 훌륭한 사람이라꼬 생각하지 않십니다!”

“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사 이런 촌구석에 살아도 마리칸이 날이에 사는 가시나한테 뽕 가빠려서 자주 찾아간단 소문을 다 안 들었는교? 그러면 나랏일은 언제 볼건데예? 용이 물고기 옷을 입고 다니면 어부한테 잡히는 법인데, 마리칸이란 분이 변복을 하고 계집질이나 하러 다닌다니, 그렇게 신중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교? 쫓쫓…”

노파의 일장훈계를 들은 소지마립간은 얼굴이 화끈거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벽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는 벽화를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서라벌로 불러 후궁으로 들어앉혔다.

“벽화야! 나는 내가 늙어도 좋나?”

“하모요! 지는 마리칸이 제일 좋아예! 지를 여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는교?” “아이고, 요 귀여운 것! 내사 니가 너무 이뻐서 몬 살겠구마! 와 이리 이쁘게 생겼노!”

결국 소지마립간은 벽화와의 지나친 색사로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을 것을 불과 두 달밖에 더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늘그막에 찾아온 그 바람은 참으로 무서운 죽음의 바람이었다.

소지마립간이 죽은 뒤에 벽화는 어떻게 되었는가. 왕자를 낳았는데, 왕위를 잇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산종의 범처럼 위엄 있게, 느긋하게 때를 기다리던 부군 지도로가 대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 지도로가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이다.

늙은 소지마립간의 후궁이 되어 서라벌로 들어왔다가 불과 1년 만에 청상과부가 된 절세미녀 벽화는 어떻게 되었는가. 벽화는 지증마립간에 이어 왕위를 잇는 김원종(金原宗)의 부인이 된다. 이 김원종이 뒷날의 법흥왕(法興王)이다. [7]

엄기형 원로회우 별세

엄기형 원로회우가 지난 1월 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고인은 1919년 1월 15일 함북 경성에서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48년 한성일보 정치부기사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한 고인은 동화통신 편집부장, 연합신문 논설위원,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한국



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 심의실장을 역임했다. 또한 월간 다리 주간, 서울중앙방송국 국제방송국 동양방송 시사해설담당, 공연윤리위원회 전문심의위원, 자유지성 300인회 사회문화위원장직 등을 맡

아 언론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 한바있다. 이 같은 공적으로 금성화랑무공훈장, 방송문화상(언론부문), 서울시문화상(언론부문)등을 수상했다. [국문]

이필면 원로회우 별세

이필면 원로회우가 지난 1월 8일 캐나다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21년 6월 5일생으로 경성공립 공업학교 졸업 후 1947년 3월 합동통신 기사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했다. 대한



부대인 17연대를 따라 국군의 수복과정을 취재하는 등 활약이 눈부셨다.

언론계를 떠나서는 상해염전을 창설했으며 인천상공회의소 상임위원, 인천상사 대표이사, 인천통운(주) 대표이사, 인천항부두관리협회 상무이사, 대한개발공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국문]

1950년 9월 15일 전격적으로 강행된 인천 상륙작전 당시 육군 유일의 참전

한국 신문윤리의 기초 마련

고 엄기형 회우의 일생

고 엄기형 원로회우는 대한언론인회 창립멤버로 1977년 대한언론인회의 전신인 4·7 구락부를 창설한 주역중의 한 사람이었다. 총 회원 50명으로 출발한 4·7 구락부는 당시 임원진을 구성함에 있어 엄기형 회우를 감사로 영입했다. 강영수(작고·전 대한일보 주필 편집국장)씨와 함께 감사직을 맡았던 엄기형 선생은 그후 언론창달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직의 위상제고와 운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엄기형 선생은 또한 한국신문윤리의 기초를 마련한 분으로도 유명하다. 오랜 기간 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 및 심의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써의 책임을 다하려면 언론본연의 사명과 함께 윤리적 측면에서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 엄기형 선생의 지론이다. 엄기형 선생은 저서 ‘언론윤리론’을 통해 이점을 분명히 했다. 엄기형 선생은 이 책에서 언론인이 공적언론 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떳떳해야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신공격에서 저작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방송과 통신이라는 기존의 제도적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차원적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 볼때 새로운 언론환경에 맞는 미디어 윤리관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언론이 정도를 걷고 사회적 공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엄기형 선생의 선견지명은 우리 언론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일깨워준다 하겠다. [국문]

인천상륙·서울수복 현장보도

고 이필면 회우의 일생

고 이필면 원로회우는 6·25 전쟁당시 인천상륙작전 참전부대인 육군 제17연대를 따라 종군, 국군의 서울 수복과정을 취재한 기자로 유명하다. 대한통신 기자로 종군했던 고인이 당시 해병대의 서울진입은 17연대의 후방차단작전에 힘입은바 크다고 증언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우리 해병대는 1개 연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육군에서 1개 연대를 추가하게 됐고 17연대가 그 책임부대로 선정된 것이다. 당시 17연대를 지휘한 사람은 백인엽 대령으로, 전공이 많은 지휘관이 서울을 수복해야한다는 이승만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17연대가 인천에 상륙한 것은 9월 24일 오전. 이어 미 10군단과 함께 그날 저녁 서울 흑석동까지 진출, 25일 서빙고 방향으로 도하해 들어갔다 당시 임무는 서울 남산아래로부터 태릉과 경춘

가도 방면으로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미 32연대와 함께 노도와 같이 진격, 25일 밤 남산을 점령하는 등 왕십리 태릉으로 이어지는 차단선을 점령해 나갔다.

미 해병대와 한국해병대는 서대문방면 마포 일대에서 공세를 취했으나 적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이를 격파하느라 전진은 불가능했다.

28일 아침 17연대는 서울 동남쪽의 적을 섬멸하면서 연대본부를 왕십리에서 서울중심부로 옮길 수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생생하게 보도했던 고인은 17연대의 신속 과감한 후방차단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서울 수복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술회한바 있다. 고인의 이 같은 인천상륙작전 종군기는 전사에 남을 실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문]

언론가 소식

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송희영 씨 선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으로 송희영(59) 조선일보 논설주간을 선출했다. 송 신임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서 도쿄특파원, 경제과 학부장, 워싱턴지국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도 한국신문상 공모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뛰어난 보도 활동을 통해 한국 신문 방송과 언론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는 2013년도 한국신문상 수상작(뉴스취재 보도부문, 기획 탐사 보도부문)을 공모한다.(시상 4월 5일) 전화 733-2251

언론진흥재단 창립 3주년 기념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본회회우)은 지난 2월 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 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2012년도 우수사원을 표창했다. 이성준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언론진흥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자”고 역설했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창립 3주년 기념식.

다. 재단은 특히 대학 신문읽기 강좌 2013년도 1학기 대상으로 동국대 등 21개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대학에는 강사료 등으로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지원된다.

KBS 여론집중도 평가 1위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가 첫 사업으로 시행한 매체영향력평가에서 KBS가 여론집중도와 영향력

점유율에서 1위에 올랐다. 3년전 출범한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가 처음 진행한 정부 차원의 이 조사는 TV와 라디오 방송, 신문, 인터넷 4개부문에 대해 각각 설문과 시청률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원로 언론인 정광모씨 별세

원로 언론인 정광모씨가 지난 2월 12일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장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10개 소비자단체 회장이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 치러졌다.

고인은 1929년 11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태어나 이화여자중·고등학교와 이화여대를 거쳐 1951년부터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에서 언론인으로 재직했고 한국 최초로 청와대와 법조를 출입한 여기자로 유명하다.

고인은 1970년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운동 민간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을 창립, 1979년부터 34년 동안 회장으로 재직했다. 고인이 평생 동안 벌인 소비자 운동은 한국일보 기자 시절인 1968년 4월 불량품 고발 운동을 시작으로 비롯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도 4차례나 역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인이 한국소비자연맹을 창립한지 10년 만인 1980년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 왔으며 장지는 충북 음성군 꽃동네다.

회우동정 가나다순

JTBC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선임



강병우(전 KBS 편성본부장)회우=지난 1월 29일 JT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구세군에 책 21만 여권 전달



권영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전 중앙일보 사장)회우= 지난 2월 19일 39개 출판사가 후원한 양서 21만 3,952권을 국제구호단체인 한국구세군에 전달했다. 구세군은 이책을 전국각지의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거주지역 마을금고 등에 보낼 예정이다.

정전 60주기념사업 추진위 발족



김인규(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전KBS사장)회우= 최근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인규 회우는 지난 1월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전 6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거행했다.

‘김수환추기경과 언론’ 특강



김 현(문화산책 회장·전 KBS 방송연구실장)회우= 1월 30일 양천구 평생학습센터에서 ‘김수환추기경과 언론’이란 주제로 특강. 2월 6일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손숙 데뷔 50주년 기념 공연 ‘어머니’를 회원들과 함께 관람했다. 김현 회우는 또한 3월 8일부터 2주간 아프리카 여행단을 인솔한다.

TV조선 출연, 대담



도준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사= 2013년 2월 13일 TV조선에 출연, 북한 3차 핵실험의 문제점 등에 관해 대담.

一湖 文俊澈 전시회



문준철(서화가·전 내외경제편집국장)원로회우=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사동 홍익빌딩 갤러리 라메르에서 그동안 만들어낸 작품전시회를 갖는다.

재경 고성향우회 회장 취임



심의표(남북교류기획국장·전 KBS 해설위원)이사= 지난 1월 재경 고성향우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지난 2

월 19일 저녁에는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 대강당에서 임원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채널A TV에 출연



여영무(뉴스엔피플 대표·전 동아일보논설위원)회우= 지난 2월 3일, 10일 양일간 채널A TV에 출연, 북핵문제 및 박근혜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 관해 인터뷰.

‘코리아 포스트’ 커버스토리 기고



윤익한(헤럴드경제 사우 회장·전 코리아헤럴드 주필 겸 전무)상담역= 주한외교사절과 외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영문월간지 ‘코리아 포스트’는 윤상담역이 코리아헤럴드에서 8년간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본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기억들을 지난 1월호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모두 11장의 사진을 곁들인 5쪽의 기고문에서 윤상담역은 박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와 일화 등을 소개했다.

‘사랑의 복지재단’ 이사장에 취임



이민희(전 KBS미디어 사장·전 홍익대 교수)회우= 지난 2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이사장에 취임했다.

평화저널 아카데미 강사로



최병요(전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논설위원= 지난 2월 18일부터 지구촌언론포럼(회장 최귀조·분회 이사)이 주관하고 있는 ‘평화저널 아카데미’ 강사로 위촉 됐다. 최 위원은 2월 18~19 양일간 ‘신문기자작성의 기초’를 주제로 강의했다.

SBS 모닝와이드 출연



홍용수(NSI자산관리연구회 회장·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원로회우= 1월 31일 오전 7시50분 ‘SBS모닝와이드’에 출연해 NSI 자산관리연구회장 명의로 ‘노후대책-건강과 경제문제’ ‘저축과 복리투자원칙’ 등에 대해 강연했다.

사우회 소식

동아일보

동우회보 30호 발행

동아일보사우회(회장 김광희·분회 회우)는 지난 2월 20일자로 사우회보 30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16면으로 나온 이번 회보엔 채널A 시청률이 종편TV중 1위로 부상했다는 기사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동우회 교양강좌 개설 소식과 5월 임시총회 소식을 비롯한 각종 사업계획도 선보였다.

눈에 띄는 분회 회우의 글을 보면 박경석 회우(‘박근혜정부 특단의 리더십 발휘하라’)와 최희조 회우(‘재정부 복지 공약 출구전략 필요하다’)의 시론, 김광희 회우의 세정낙수 ‘거세개탁의 해법’ 등 읽을거리가 많다.

이밖에 8~9면 양면에 걸쳐 실은 정구종 분회 회우와 이기홍 사회부장과

선후배대담도 압권이다.

동우회는 또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동우들이 모여 고전 명곡과 오페라등을 감상한다. 동우회는 이밖에도 동우들이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전문가초청 교양강좌도 개설했다.

KBS

정근춘 13대 회장추대

KBS사우회는 지난 2월 15일 KBS라디오 공개 홀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근춘회우를 13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총회는 2012년도 수지 결산, 2013년도 사업계획과 3억5천8백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새해 예산은 2012년도 3억2200만원 대비 36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금년도 첫 자격심사위원회 열려

대한언론인회 금년도 첫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이창호)가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 분회 회의실에서 있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입회서류를 제출한 손위수(전 한국일보 기자) 김우상(전 KBS 사회교육방송국 부장) 박동선(전 KBS 진주방송국장)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분회 기우회 3월 29일 1분기 모임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는 오는 3월 29일(금) 오후 2시 종로 3가 바둑 세계기원 (국일관 뒤편)에서 금년도 1분기 바둑 모임을 갖습니다.

새 봄의 꽃소식과 함께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밝은 재회를 기다립니다. 움츠렸던 긴 겨울의 동면을 깨고 수답으로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 회우경조사 ◀

결혼

박석홍(본보 편집위원)회우 장남= 3월 1일 오후 5시 KW컨벤션센터

부음

곽찬호(한국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원로회우= 부인상, 2월24일 오후 1시50분 건국대병원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8시

한동희 회우=2월 25일 모친상 발인 2월 27일 아침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가나다순·괄호안 납입연도)

강두모(13)

안광식(13)

조남조(12)

한영섭(3만원찬조)

고덕환(13)

유진수(13)

조천용(13)

국기일(14)

은종일(13)

최종수(37년생 13) <2월25일 현재>

김정기(13)

이병국(13)

김정삼(13)

이성호(13)

김한영(13)

이세환(13)

박문두(13)

이종윤(13)

박용근(13)

정연춘(07,08,09,

성병욱(13)

10,11,12)

손주환(13)

장창영(13)

송정제(13)

정용기(13)

신우식(13)

제재형(13)

▶ 분회인사 ◀

△ 원로위원회 위원장: 황대연

△ 원로위원회 간사: 곽찬호

△ 사진담당 편집위원: 이철영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 인쇄인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 주필
· 편집위원장
· 광고국장
· 발행처

洪元基
李榮一
鄭雲宗
文明浩
成樂五
黃貴根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김귀제 회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5 삼성래미안 501-201(우 135-872)
이병국 회우= 부산 남구 분포로 113 LG 메트로시티 202-1103(우 608-784)
임응식 회우= 서울 강동구 암사동 493-14 중앙하이츠 아파트 101동1002호 (우 134-051)
임학수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201동 1104호 (우 448-974)

kobaco
www.kobaco.co.kr

더 큰 세상을 보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광고산업을 선도해온 공영미디어랩 코바코는
선의를 경쟁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 광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광고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공영미디어랩이 되는 순간을 꿈꾸며,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